

‘괴물’이 된 대장동 재판

태평로

최원규

논설위원



지금 세간의 관심은 이달 중에 나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에 쏠려 있다. 이 사건들도 가법치 않지만 이 대표의 핵심 의혹은 ‘대장동’과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다. 4895억원 배임, 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는 사실이면 중죄(重罪)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두 사건 1심 선고는 언제 나올지 가능하기도 어렵다. 작년 3월 기소된 대장동 재판은 절반도 진행되지 않았고, 지난 6월 기소된 대북 송금 재판은 이제 시작이다. 진실이 빨리 가려지길 바라는 이들에겐 답답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은 대장동 외에 위례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개 사건이 병합돼 있는데 이제껏 위례 부분만 다루다 지난 달에야 대장동 사건 심리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 대표 측이 대장동과 관련한 검찰 측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 법정으로 불려 신문해야 하는 증인만 148명에 달한다. 한 재판부가 1년간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은 휴정기 등을 빼면 40~45주 정도이고, 증인 신문은 보통

한 재판 기일에 2~3명 정도 한다. 결국 거의 1년간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하면서 증인 신문을 해야 대장동 부분을 끝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성남FC 사건도 마찬가지다. 성남FC에 불법 후원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업 임원들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따로 재판받고 있는데 이를 보면 어느 정도 예견이 가능하다. 이 재판에 신청된 증인은 무려 470여 명이다. 피고인들이 성남시와 기업 사이에 오간 공문, 이메일을 증거로 쓰는 데 반대한

이제 시작된 대장동 증인만 148명 2~3년 지나야 1심 선고 나올 듯 내년 2월엔 재판장도 교체 대상 재판장, 교체 미루고 선고 끝내야 한다. 피고인이 부동의한 증거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로서 이를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이메일 작성에 참여한 이들을 법정에서 세워 증언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 대표가 이런 식으로 증거에 부동의하면 재판은 하염없이 늘어질 것이다.

이미 법원 안팎에선 대장동 1심 선고가 나오려면 앞으로 2~3년은 더 걸릴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1심 선고에 만 4년가량 걸릴 수 있다는 얘기도. 판사들 사이에선 ‘대장동 사건은 처리가 어려운 괴물이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대북 송금 재판은 이제 시작이라

더 말할 것도 없다. 더 큰 문제는 두 사건 재판장이 내년 2월 교체 대상이라는 점이다. 잦은 재판장 교체가 재판 지연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법원은 올해 내규를 바꿔 재판장 교체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하지만 두 사건 재판장은 내규 개정 전에 재판장이 돼 소급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재판장이 바뀌면 사건 파악에 시간이 걸려 재판은 또 늘어질 것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들이 “조작”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대북 송금 관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지사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 몰래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 대표가 대선에 나오려면 적어도 이 의혹들은 해소돼야 한다. 아니면 큰 사회적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이를 막으려면 재판장들이 책임지고 선고한다는 생각을 갖고 신속하게 재판하는 수밖에 없다. 법원 내규엔 ‘중요 사건 처리 등을 위해 교체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자신이 선고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못 할 게 없다. 이 상황까지 온 데는 수사 기록만 수백 권에 달하는 ‘트러거스’ (대장동)와 ‘늑장 기소’ (대북 송금)를 한 검찰 탓도 크다. 검찰도 불필요한 내용 줄이고 핵심 증거 위주로 다투야 한다. 이 대표도 사건이 조작됐다면 신속 재판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김준의 맛과 섬 [14]

인천 무의도 영양바지락밥

바지락은 어촌은 물론 어민들 곁간을 책임지는 고마운 조개다. 바지락은 서해와 남해의 모래 갯벌을 제외한 대부분 바닷가에 서식한다. 배가 무시로 드나드는 음광진 포구에서, 제주 바닷가 돌밭에서도 자란다. 바지락의 생명력을 보면 어민들 삶과 닮았다. 바지락이 없으면 오늘날 어촌이 있었을까. 조기가 떠난 바다를 대신해 갯벌에 서식하는 바지락에 기대어 사는 어촌 마을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마을 어장에 바지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어촌 체험이 결정될 정도로 존재감이 크다. 바지락은 갯벌 생태계에서 수질 정화 기능을 하는 조개류의 중심이다. 여기에 갈국수, 죽, 무침, 국 등 다양한 음식과 아주 잘 어울린다. 인천 무의도에 서 바지락 갈국수, 바지락 회무침도 아닌 ‘바지락 밥’을 만났다.

무의도는 인천공항에서 아주 가까운 섬이다. 가끔 긴 일정으로 외국에 갔다가 귀국해 집으로 가는 길에 빠져나와 그리운 음식을 맛보는 곳이다. 용유도와 무의도를 잇는 무의대교가 개통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주변 소무의도와 인도교로 이어져 있고, 바닷물이 빠지면 실미도를 걸어서 오갈 수 있다. 실미도는 영화의 배경이 된 섬이다. 무의도와 실미도 사이 갯벌은 바지락이 서식하기 좋은 혼합 갯벌이다. 이곳에서 바지락을 채취하고, 갯벌 체험을 하기도 한다. 겨울철에 자연산 굴을 채취한다.

가장 널리 알려진 바지락 음식은 갈국수다. 전국에 바지락 갈국수를 내놓는 식당이 있어 많은 바지락이 소비된다. 바지락을 이용해 일찍부터 만들어 먹었던 음식은 바지락 죽이다. 봄철에



는 싱싱한 바지락이나 살짝 데친 바지락을 봄 채소와 무쳐서 밥과 비벼 먹으면 바지락 회 비빔밥이 인가. 하지만 통영 굴밭처럼 바지락을 넣어 밥을 짓는 경우는 드물다. 가정식이 아니라 식당에서 바지락 밥을 만들어 내놓는 곳은 더욱 찾기 어렵다. 바지락 밥을 지을 때는 먼저 바지락 살을 식용 기름에 반쪽 익힌다. 그리고 익힌 살을 건져내고, 남은 육즙을 몰고 섞어 밥을 짓는다. 마지막 밥을 들일 때 삶아 놓은 바지락과 버섯이나 채소를 넣는다. 여기에 양념장을 올려 비벼 먹으면 된다. 이를 영양 바지락 밥이라 한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社說

불가리아 원전 20조 설계 계약 수주, K원전 연속 쾌거

현대건설이 불가리아에 건설될 원자력발전소 2기의 설계 계약을 따냈다. 20조원 규모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맞먹는 규모다. 현대건설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에 참여해 계약 수주에 성공했다. 같은 날, 한미 정부는 원전 수출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업무협약(MOU)에 가서명했다. 2022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원전 동맹 구축’을 위한 후속 조치로, 해외 원전 수출 시장에서 중국·러시아에 맞서 양국 기업들이 공동 전선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한미 협약은 한국의 체코 원전 건설 수주를 놓고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웨스팅하우스는 기술 도용을 이유로 한국의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정부에도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근 기각당했다. 한미 정부 간 원전 동맹이 강화되고 불가리아 원전 수주처럼 양국 기업 간 협력 모델이 성과를 내면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AI) 시대의 개막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세계

각국이 원전 건설에 나서며 ‘원전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K원전에 다시 없는 호기다.

한국 원전 산업이 2009년 UAE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해외 수출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속에서도 민주당은 사실에 맞지 않는 정치적 주장으로 이를 폄하하고 있다. 체코 원전 수주를 “폭박 사업”이라면서 원전 건설 자금 24조원 중 15조원을 한국 금융기관이 장기 저금리로 제공해 남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초대형 건설 사업의 입찰 제안서에 금융 지원 방안이 포함되는 건 당연한 국제 관행이다. 체코 원전 입찰에서 경쟁했던 프랑스 컨소시엄도 금융 지원을 제안했다. 한수원 등이 체코 측의 대출 요구도 없었다고 밝혀도 민주당은 계속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비난하는 것이 민주당의 목적이라고 해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탈원전 자체 정책으로 원전 산업을 붕괴시키려 한 정당이다. 그런 정당이 이제 원전 수출 쾌거를 폄하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은 자해와 같은 행방을 중단해 원전 수출에 지장을 주는 일은 범하지 않자.

尹 담화, 이번 만은 ‘안 하는 게 나았다’는 평가 안 나와야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 대통령실은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을 소상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했다. 임기가 이제 반환점인데 대통령 지지율을 10%대로 끌어내린 핵심 원인인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서도 질문을 충분히 받을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보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궁금해하는 내용을 진솔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그동안 윤 대통령의 담화나 기자회견은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2월 KBS 녹화 대담 때는 김 여사의 명품 백수수 의혹에 대해 “매정하게 뿌리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다”며 사과하지 않았다. 의전과 경호의 문제로 돌리려고 했다. 4월 총선 직전 ‘의료개혁 담화’에선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산출한 최소한의 (의대) 증원 규모”라고 말해 의료계 반발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다 총선에 참패한 뒤에야 “아내의 현명치 못한 처신에 사과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곤경에 처한 이유는 누구냐 아는 것이다. ‘김건희

희 여사 문제’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선 ‘민주당 추천 특검’이 김 여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데도 응답자 54%가 “잘한 결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추천 특검’이란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데도 54%가 지지한다는 것은 김 여사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여기에 명태군수 관련 녹취록이 연이어 공개되며 김 여사의 공천·국정 개입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실망 대부분은 부인과 관련돼 있다. 종전처럼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 마음은 아예 멀어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이 5일에야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을 강조하며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게 돼 있다”고 했다. 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혁 저항을 넘으려면 기댈 곳은 국민뿐이다. 지금 10%대 국정 지지율로는 4대 개혁을 커녕, 국정 자체를 할 수 없다. 대통령 회견이 다시 국민을 실망시킨다면 국정 동력은 사라진다.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 모든 것은 윤 대통령에게 달렸다.

정권퇴진 단체들과 거리나서지만 “탄핵 주장 안 한다”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서울역에서 장외투쟁을 하더니 이번 주말에는 야권 성향 단체들과 도심에서 집회를 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 일부가 좌파 단체들이 주도하는 정권 퇴진 집회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당 차원에서 공동 집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공동 집회의 목적이 특검법 수용 촉구일 뿐 좌파 단체들이 말하는 정권 퇴진이나 탄핵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가 참여하는 집회는 탄핵을 하자는 집회가 아니다”라며 정권 퇴진 단체들이 아닌 다른 시민단체들과 집회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주말에 집회를 주관하는 단체 이름이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본부’다. 여기에는 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중행동 등 43개 좌파 성향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4일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 선포’ 기자회견에서 “총궐기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광장을 열어야겠다”라며 장외 집회와 심야 촛불 행진을 예고했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우파 단체들도 같은 날 맞대응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충돌 우려도 있다.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단체들과 거리를 두고 별도로 집회를 하

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가깝다. 장외투쟁은 하지만 정권 퇴진 운동은 안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수만 명이 모이는 거리 집회에서는 강경한 주장이 힘을 얻고, 특검 수용 같은 구호는 뒤로 밀린다. 결국 민주당이 좌파 단체들과 거리에서 손을 잡기 시작하면 그다음에는 정권 퇴진과 탄핵을 위한 장외투쟁도 이어진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이 안 되면 다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일부 의원은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 연대’를 공식 출범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불참하지만 참여 의원이 40여 명이라고 한다. 이들은 시민단체와 연대하고 ‘탄핵 이후’를 대비하는 연구 모임도 만들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싶은 속내가 굴뚝 같은데 자칫 역풍이 불까봐 대놓고 탄핵 소리를 꺼내기는 겁이 나는 모양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정권 퇴진을 외치는 단체들과 사실상 함께 거리에 나서며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변명을 늘어놓는 건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

〈가짜 뉴스〉 독버섯 독항기 모락모락!

돌아가는 꼴, 8년 전 빼닮나... 《광기의 민중 민주주의의 시즌 3》 개막

뉴데일리 newdaily.co.kr

〈가짜 뉴스〉로 군림 때, 우중(愚衆) 동원 이재명당, 국힘 8명 배신 전제로 개헌? 헌법재판소 못 믿겠다는 것! 의식 2/3, 국민투표 과반수 찬성 코스로 우회? 한동훈, 〈제2 유승민·김무성〉 길 뻐나?



▲ 〈광민 시즌 3〉 시작. 〈시즌 1 광우행〉은 이명박 대통령을 식물화했다. 〈시즌 2 훗날 광란은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냈다. 〈시즌 3 김건희 악미화〉는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 한다. 우파 대통령 3명 연속 공격 주무기는 오로지 〈가짜 뉴스〉. 민주주의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서울역 인근에 모인 이재명당 일당들은 30만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2만 8천, 경찰은 2만으로 추산. © 서성진 기자

드디어, 올 게 오는가

2024년 11월 2일, 이재명과 조국 일당이 아스팔트 위에 모였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준비모임〉이란 것도 만들었다.

이걸 알고 그랬나? 언론들도 요란하게 떠들었다. ★ 〈국민 거역하는 권력자 안돼〉 ★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 〈김건희 특검〉

돌아가는 꼴이, 꼭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빼닮았다. 그때도 〈극좌파+우파 일부(중간파)〉가 〈우파 대통령〉을 몰아냈다.

역사는 되풀이 되는가? 시인 서정주라면, 이렇게 읊었을 지 모른다. “한 송이 국화꽃 / 아니 / 한 줄기 독버섯을 / 피우기 위해 / 지난밤 천둥은 /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극좌+중간파〉 정치인, 언론들이 결국 이걸 하려고 그토록 난리를 쳤나? 〈극좌〉와 〈중간파〉의 노림수는 조금씩 다르면서도 서로 통했다.

개헌 주장에 숨은 독항기

〈좌파의 노림수〉는, ★ 〈우파 대통령 집권의 길〉을 영구히 막으려는 것 ★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는 것 ★ 〈남북 연방제〉에 앞서 〈남한 연방제〉부터 하려는 것 ★ 〈국가 기초(基調)〉에 〈민중항쟁 이념〉을 깔려는 것 ★ 〈자유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려는 것.

〈중간파의 노림수〉는, ★ 〈강력한 대통령제〉를 없애고 자신들의 〈사적(私的) 권력〉을 확대하려는 것 ★ 세상이 〈좌익〉으로 넘어갔다는 판단하에 자신들의 〈살길〉을 〈좌익파의 동침〉으로 보장받으려는 것 ★ 〈박근혜 탄핵〉에 앞장선 자신들의 8년 전 행위를 길이 정당화하려는 것.

오래된, 그리고 계속되는 음모

이들의 〈내각제 개헌을 통한 자구책(自救策)〉은 따라서 이번에 처음 들쭉날쭉한 게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전후한 시기에 〈김무성 유승민 등 보수 일부〉도 ★ 대통령제 허물기 ★ 공천권 나눠 먹기 ★ 증세(增稅)=국가 개입 확대 등을 내걸었다.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바꾸든, 약하게 만들든” 하자는 것이었다.

이때도 〈가짜 뉴스 난동〉이 판을 쳤다. 여성에 대한 〈악마화〉가 극에 달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새월호 7시간〉 동안 남자와 밀회했다. ★ 〈최서원(순선) 태블릿〉이 어땠다. ★ 〈그녀의 은닉재산〉이 수십조 원에 달한다. 어찌고

왕년의 괴수(怪獸)가 프랑켄슈타인이었다면, 오늘의 프랑켄슈타인은 〈광(狂) 팬〉이란 괴수다. 〈가짜 뉴스〉가 대중

을 괴수로 만들었다.

그 괴수가 이명박을 식물화했고, 박근혜를 죽였고, 윤석열을 죽인다. 한동훈이 어찌자고 거기 가 불고.

‘노’라 외쳐야... 이제 전쟁이다

응답하라, 2024 대한민국 자유인들. 우리는 이 〈광기의 민중민주주의〉를 되풀이할 것인가, ‘노(no)’라 외칠 것인가?

“노”라 외쳐야 한다. 왜? 우파 대통령들이 그렇게 넘어갈 때마다 〈대한민국의 지명력〉이 왕창 빠지곤 하지 않았나? 또 그랬다간 〈자유 체제 총 붕괴〉의 시작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자유인들, 목숨의 99%를 바쳐, 1% 살 것을 결단할 때다. 전쟁이다!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김현모 2024년 11월 2일 게재 되었습니다.